

■ 고운(槐雲) 칼럼



자운서원(紫雲書院)과 화석정(花石亭)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며칠 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율곡(栗谷)선생의 성지 자운서원(紫雲書院)과 임진강강변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을 다녀왔다. 먼저 자운서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에 위치하며, 경기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운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윤곡 이이(李珥: 1536-1584)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광해군 7년(1615년) 지방 유림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 후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 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970년대 국가 지원금과 유림들의 기금조성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경내에는 윤곡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 강당, 서재와 그와 모친 신사임당(申師任堂)의 112점의 유물을 전시한 윤곡기념관 등이 있다. 서원 입구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새로 건립한 윤곡교육연수원이 있고, 동쪽에는 윤곡선생과 신사임당 묘소 등 13개의 가족묘가 있어 이곳은 윤곡선생의 성지(聖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원 내삼문 밖 우측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당대 명필 곡운(谷雲) 김수증(金壽曾)이 쓴 자운서원 묘정비(廟庭碑)가, 경내 좌측 산기슭에는 향토유적 제6호인 윤곡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신도비(神道碑)와 경기도 기념물 제15호인 윤곡선생의 묘가 평범한 묘제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다음은 화석정이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유흥 3리 산100-1에 위치하며, 경기도 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운서원에서 약 8km 떨어진 임진강 강변에 위치한 곳으로 예부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화석정은 원래 개성 장단을 향했으며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이 굽이 흐르고 날이 맑은 때는 서울 삼각산과 개성 오관산(五冠山)이 보인다고 한다. 이 화석정은 1443년(세종25년) 윤곡의 5대 조부인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信)이 세웠으며, 1478년(성종9년) 몽암(夢庵) 이숙감(李淑)이 화석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윤곡선생이 어린 시절 학문을 익히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곳을 중수하여 제자들과 여생을 함께 보내면서 시와 학문을 논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국 사신 황홍현(黃洪憲)도 이곳을 찾아와서 시를 읊고 즐기다 갔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의주로 피난 갈 때 한밤중에 이 정자를 불태워 환하게 밝혀 임진강을 건넜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이 화석정은 1673년(현종14년) 중건했으나, 6.25전쟁 때 다시 소실되자 1966년 파주유림들의 성금과 1973년 정부의 '율곡, 신사임당 유적 정화사업' 일환으로 중건하고 단정을 하였다.

현재 화석정 정자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화석정(花石亭)이란 편액이 걸려있고, 정자 내부에는 상량문 등 여러 개 현판이 걸려있다. 정자 우측 옆

에는 수령 570년이 넘은 보호수 느티나무가 있고, 정자 좌측 마당에는 2001년 파주 군수가 세운 윤곡선생이 8세 때 지은 오언율시(五言律詩) '화석정시(花石亭詩)' 팔세부시(八歲賦詩)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시는 가을 풍경을 한가롭게 표현한 시로서 윤곡선생의 유년시절 글재주를 엿 볼 수 있다.

화석정 시(花石亭詩)-李珥(李栗谷)-

林亭秋已晚(임정추이만)하나
: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드니,
驟客意無窮(소객의무궁)이라
: 시인의 시상(詩想) 끝이 없구나.
遠水連天碧(원수연천벽)이요
: 멀리 보이는 물줄기는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상풍향일홍)이라
: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게 물들었네.
山吐孤輪月(산토고륜월)하고
: 산은 외로운 등근달을 토해내고(산위로 달이 떠오르고)
江含萬里風(강함만리풍)이라
: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었네.
塞鴻何處去(새홍하처고)하고
: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 고?
聲斷暮雲中(성단모운중)이라
: 울고 가는 소리가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율곡 이이(李珥)는 조선조 중기 유명한 유학자로 명종과 선조때 문신(文臣)이며, 자는 숙현(叔獻), 호는 유흥(栗谷), 석답(石潭), 우재(愚齋)이다.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申任堂 申氏)이다.

율곡선생은 외인간 강릉에서 출생하여, 파주 유흥리에서 성장했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나 8세에 '화석정' 시를 썼으며, 13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생원시에 장원한 이후 아홉 번의 과거에 장원급제한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었다. 그는 현실적 문제를 중시하는 실천적인 학풍으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에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경세가(經世家)로 큰 업적을 남겼다. 사장(社倉) 설치, 대동법(大同法) 실시, 십만양병설 주장 등 사회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선견(先見)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성학집요(聖學輯要), 격몽요결(擊蒙要訣) 소학집주개론(小學集注改本) 등이 있다.

근래 파주시는 윤곡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공덕을 주양하고 파주시민의 애합심과 화합의 정을 마련하기 매년 가을에 윤곡선생의 추향제례(秋享祭禮)를 비롯하여 향토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두문불출 하다가 모처럼 지인들과 함께 옛 선人们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현재 화석정 정자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화석정(花石亭)이란 편액이 걸려있고, 정자 내부에는 상량문 등 여러 개 현판이 걸려있다. 정자 우측 옆



이달의 책

인생은 아주 짧은 편도여행

/ 초영 권순복

높은 일기장 같은 메모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일이 먼저 떠오른다. 흐르는 시간들은 뜯구름같이 지나가고 짧음에 지쳐서 늙어가는 내 모습이 석양을 마무리하는 저녁노을에 쌍무지개 같이 비쳐지길 바라

는 내 욕망 감출 길 없어 식어가는 열정을 모두 담아 정성을 들여 내 삶의 좌표를 가늠해 본다. "인생은 아주 짧은 편도여행"이라고!!

저자는 월간 <한글문화>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무지개빛>, <신은 제자리에 있고 구름만 흘러간다> 등의 저서가 있으며 국무총리표창과 대통령표창 및 흥교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그동안 생각날 때마다 짭짤이 내 정성 들여 적어

생활속의 한방건강

권희완(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증진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한의학의 기본이론은 기, 음양, 오행이다.

1. 하나-기(氣, energy)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하나이다. 더 크게 보면 지구도 하나다. 더 크게 보면 모두가 하나로 존재한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도 하나가 되고, 친척도 하나가 되고, 동포도 하나가 되고, 인류도 하나가 되고, 우주도 하나가 된다.

한의학에서는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그 큰 하나님을 '기'라는 용어로 말한다. 세상은 하나로 말하면, 크게 '기'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존재는 실제와 원리를 동시에 합유하고 있다. 즉 내용 일수도-형태 일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정신일수도 있는 그것들이 따로, 함께하여 생명력으로 실제하는 것이 '기'이다.

기는 하나지만, 안팎에서 끊임없는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무상(無常)이다. 사람도 기의 실체이므로 우리의 삶도 무상하다.

2. 둘-음(陰), 양(陽)

현재 한반도를 기준을 적용하여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먼저 지형적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경제적으로 부자와 빈곤자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사회적으로 상류와 서민으로, 종교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로 등등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근면한 자와 게으른 자, 재수 좋은 자와 재수 없는 자로 나눌 수도 있겠다.

어느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나누는 사람의 관점이나 가치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구분지어 나누는데, 그 나눔의 기준과 대상은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그 둘을 '음'과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음양은 절대적으로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 아니라, 개념적으로 '기' 전체를 둘로 바라보며, 그 중의 각각 한 면을 상대적으로 '음기'와 '양기'로 대명(代名)하는 것이다.

짝수가 음이라면 홀수는 양, 여자가 음이라면 남자는 양, 뚱뚱이가 음이라면 험쭉이는 양, 물이 음이라면 불은 양이다. 차가운 물은 음 따스한 물은 양이 된다. 상대적이다.

음은 내적 안정을, 양은 외적 변화의 속성을 대표한다. 둘이 함께하는 전체의 한 틀 안에서, 음과 양은 서로 협력하기도 서로 대치하면서, 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

3. 다섯-오행(五行)

한반도를 기준을 적용하여 다섯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쉽지 않다. 통상 한 기준을 적용하되, 1개를 보통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소의 정도로 구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된 사람(인격자), 조금 된 사람(성실자), 보통(평범인), 조금 못 된 사람, 못 된 사람(파탄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한의학에서는 변화하는 '음기'와 '양기'가 한 틀 안에서 한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나눈다. 그것을 현존하고 있는 물질의 속성에 벗어나,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지칭한다. 한 틀 안에서 목은 양이 많고 음이 적은 것이며, 화는 양은 아주 많고 음은 거의 적으며, 토는 양과 음이 균형을 이루고, 금은 양이 거의 없고 음이 아주 많은 것이며, 수는 양이 적고 음이 많은 것이다.

4. 음양의 대립과 학합

다른 성질을 가진 음과 양이 학합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임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행복한 일이다. 국적이 다른 이민족이 결혼하면, 참 예쁜 아이들이 태어난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두 집단이 다투면, 파괴가 도사린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개념정립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싸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높은 의식에서 나오는 발전을 위한 논의와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낮은 차원의 비난과 헐책은 서로를 좀 먹는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5. 오행의 상생과 상剋

음과 양의 합유 정도에 따라 물체들은 각각 특성의 성질을 드러내며, 다른 물체의 생성을 돋는다. 나무는 불을 지피게 하고, 불은 흙을 일구고, 흙은 쇠를 품고, 쇠는 물을 만든다.

또한 그러한 특성들은 또 다른 물체에 대해서 자극을 준다. 나무는 흙에서 양분을 취하고, 흙은 물의 흐름을 막고, 물은 불을 꺼지게 하고, 불은 쇠를 녹이며, 쇠는 나무를 자른다. 한 물체의 적절한



자극은 다른 물체의 질제적 선형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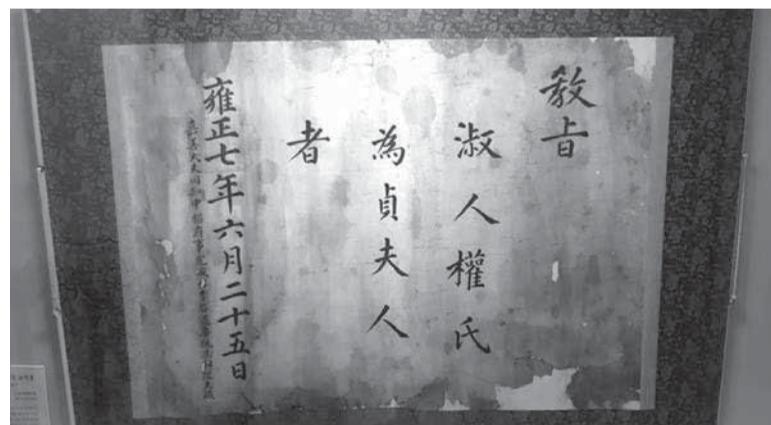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만 못하다'라는 말로, 지나침을 경계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비판과 논의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6. 높은 의식을 향한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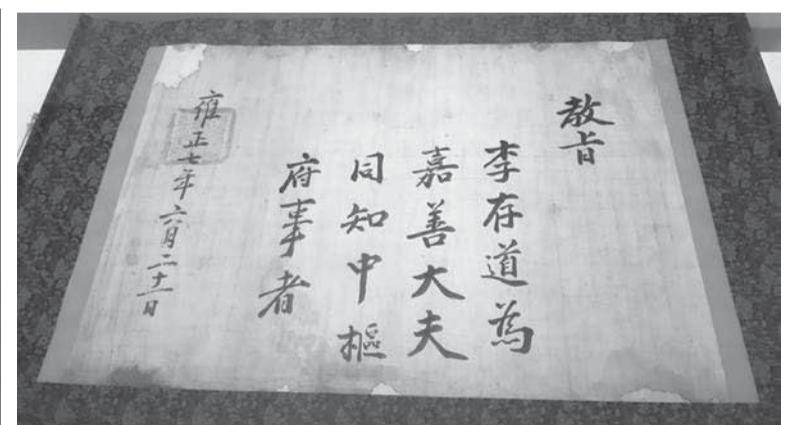
'높은 의식을 지닌 사람'은 넓게 전체를 바라보고, 그 안의 세부요인들을 2개로, 5개로, 또는 그 이상으로 깊게 구별하여, 그 틀이나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그 안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생기(生氣)와 활기(活氣)가 있어 주변을 맑고 밝게 하는데 힘찬 영향을 준다. 함께하는 자체가 기쁨이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의식이 높은 영적 수준이 높은 나라의 나라이다. 물질적 성장 위에 보다 더 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의식의 향상은 살아 있는 동안 우리에게 지속해야 할 영롱한 주제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큰 나와 큰 너를 위해서!

정부인 안동권씨 교지



죽인 안동권씨에게 내린 정부인 교지



이인복에게 내린 동지증주부사 교지

공) 권녕(權寧)의 후손으로 26세 안선군(安善君) 권석(權碩, 1632~1713)의 3남 2녀 중 막내딸이다. 오리 이원익의 5대 손이자 안동권씨의 아들 이인복(1683~1730)은 1705년(23세)은 소과인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고, 1714년(32세) 소과에 합격한 지 9년 만에 드디어 대과에 합격한다.

나중에 정부인 안동권씨는 아들 이인복(李仁復)의 현달로 인하여 1품인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 이달의 시

눈먼 사랑

/ 권규학 시인

어느 날엔 가 눈이 멀었다
그대가 내 눈에 들어오던 날
하늘에선 천동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엔 온통 암흑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해맑은 미소와
또그르르 구르는 목소리밖에



권선복 행복에너지 대표, 태백시에 도서 1500권 기증



권선복(사진 오른쪽) 강원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가 지난 20일 강원도 태백시 시장 집무실에서 류태호(사진 가운데) 태백시장에게 도서 50종 1500권 기증식을 가졌다.

권선복 대표는 기증식에 서 "책을 통해 태백시민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계간 '태화문학' 수필부문 신인상(1982)·'파랑새의 꿈' 외 1편, 월간 '한글문학' 시부문 신인상(2004)·'초기(草家)가 있던 자리' 외 4편, '늘푸른문학회 회장'